|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 | 보도자료 | 2026. 10. 23.(금) 배포 즉시 보도 가능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농업기술원 | | 기술지원조정과장 | 송효선 | ☎ 760-7510 |
| | | 업무담당자 | 고덕훈 | ☎ 760-7533 |
| | | 홍보담당자 | 양지순 | ☎ 760-7514 |

# 폭염과 가뭄 겪은 제주 콩, 적기 수확·건조로 품질 지켜야

- 10월 하순~11월 중순 수확 예상… 품종·재배지별 성숙 상태 확인 필요 -

- 비 피해 막도록 배수로 정비하고 수확 후 건조와 불량 콩 선별 권장 -

❑ **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가뭄과 폭염으로 콩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, 비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기 수확과 철저한 수확 후 관리를 당부했다.**

○ 올해 제주 지역은 7월 7일부터 40일간 가뭄과 폭염이 이어졌으며, 콩알이 차오르는 시기인 9월 1~25일에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됐다.

○ 특히 7월 상순 이전에 파종한 재배지에서는 생육이 부진하고 꼬투리가 적게 달리거나 콩이 제대로 여물지 않는 피해가 나타났다.

○ 반면 7월 중순 이후 파종한 재배지는 가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고, 8월 중순 비가 내린 뒤 생육이 회복돼 꼬투리 형성과 결실이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.

○ 이달 17일 기준 도내 콩 재배지의 95%가 잎이 누렇게 변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으나, 7월 상순 이전에 파종한 해안가 재배지를 중심으로 성숙기에도 잎과 줄기가 푸르게 남는 ‘녹체현상’이 확인되고 있다.

❑ **올해 콩 수확은 품종과 파종 시기에 따라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.**

○ 품종 ‘해찬’과 ‘풍산나물콩’은 10월 하순부터, ‘아람’

은 11월 상·중순에 수확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○ 농가에서는 재배지별 성숙 상태를 살펴 알맞은 시기에 수확하고, 수확한 콩은 충분히 말린 뒤 이물질과 불량 콩을 골라내야 한다.

○ ‘해찬’과 ‘아람’은 기계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다. 다만 생육이 부진해 첫 꼬투리가 달리는 위치가 낮은 경우에는 손으로 수확해 손실을 줄여야 한다.

❑ **비 예보가 이어질 때는 배수로를 미리 정비해 토양이 지나치게 습해지거나 재배지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.**

○ 잦은 비는 자주무늬병(자반병)과 미라병 등 생육 후기 병해를 늘리고 콩알을 썩게 할 수 있다. 수확 전 꼬투리 안에서 콩의 싹이 트는 ‘수발아’ 피해에도 주의해야 한다.

❑ **농업기술원은 적기 수확과 건조·선별 등 수확 후 관리 요령을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.**

○ 기상재해에 강한 ‘해찬’ 등 우량 품종의 종자를 농가끼리 자율적으로 교환하도록 유도하고, 보급종 확보 방안도 추진한다.

❑ **김태균 제주도 농업기술원장은 “올해 폭염과 가뭄으로 일찍 심은 콩의 수확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제때 수확하고 관리해 품질을 지켜야 한다”며 “변화하는 기상 여건에 맞춰 파종 시기를 조정하고 우량 품종을 선택하는 등 적절한 재배관리가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**